

지역경제 단비…보성군 ‘민생회복 30만원’ 지원

‘벗 없는 군정’ 건전 재정 결실

666억 원 통합재정기금 활용

2천251개 가맹점서 소비 가능

보성군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시름하는 군민들을 위해 내년에도 전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한다.

16일 보성군에 따르면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

산안에 ‘보성사랑(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예산을 편성했으며, 해당 안건은 지난 11일 보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예산안은 16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군은 의결 즉시 집행 절차에 돌입해 다가오는 설 명절 이전에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이나 나이,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보성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에게 지급되며, 국비나 도비 지원 없이 전액 보성군 자체

재원으로만 충당한다.

지원금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군은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1만원권 상품권 확보 작업도 병행 중이다.

재원은 군이 지난 2019년부터 계획적으로 조성해 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마련된다. 이 기금은 여유 재원이 발생했을 때 미리 적립해 두었다가 재난 상황이나 경기 침체 등 위기 시에

사용하는 군의 ‘비상금’ 역할을 하며, 현재 기금 규모는 666억 원에 달한다.

지급된 상품권은 관내 2천251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마트와 전통시장은 물론 식당, 미용실, 주유소, 병·의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해 설 대목을 앞둔 지역 상권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군민 1인당 30만원의 구매력이 시장에 풀리면 매출 증대에 즉

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이 모아준 세금을 가장 필요한 시기에 다시 군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군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 경제의 협판을 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보성군은 올해 1월에도 해당 기금을 활용해 총 112억 원 규모의 지원금(1인당 30만원)을 전군민에게 지급한 바 있다. /보성=임병언 기자



최근화엄사 화엄원에서 열린 ‘화엄사 K-명상 힐링의 날’ 행사에 참여한 구례 중·고등생 80명과 우석 스님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구례군, 청소년 주도 마음충전 프로젝트 성료

‘화엄사 K-명상 힐링의 날’ 개최

중·고등생 80명 정서 안정 지원

사찰·지자체·학교 등 협력 기반

구례군은 “최근화엄사 화엄원에서 중·고등학생 등 80여명이 참여한 청소년 마음충전 프로젝트 ‘화엄사 K-명상 힐링의 날’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구례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 또래상담동아리(솔리언)의 제안에 따라 청소년

의 학업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 안정 지원을 위해 추진됐으며, 청소년들이 기획부터 운영, 기록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청소년 자치 역량 강화 모델로 운영됐다.

행사는 구례군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관으로 화엄사, 구례교육지원청 등 12개 기관이 협력해 장소 제공, 인원 모집, 차량·식사 지원 등 운영을 함께 담당하며 민·관 협력 기반의 지역 친구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프로그램은 ▲마음 이해 명상 ▲마음챙김 요가 ▲심성불 명상 ▲학언 시각화 명상 등 K-명상 프로그램과 오후 만다라 미술치료 및

‘나에게 쓰는 감사 편지’ 작성 등으로 구성돼 심리 안정과 자기 성장을 돋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 화엄사 꽃스님으로 유명한 범정스님과의 Q&A를 통해 우울·스트레스 관련 고민을 직접 나누고 조언을 받았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기획·운영까지 참여해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 자원을 활용해 청소년들의 마음을 들보고 성장을 돋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고흥 지죽도·죽도 김 활용 된장국·스낵 ‘첫 선’

동결건조 로컬푸드 시제품 개발

앵커조직-주민-사회적기업 협력

고흥 청정 해역의 김을 활용한 동결건조 김된장국과 김스낵이 첫 선을 보인다. 〈사진〉 16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죽도·죽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앵커조직과 주민, 지역 사회적기업이 협력해 지역 특산물인 김을 활용한 로컬푸드 시제품 김된장국, 김스낵을 개발했다.

이번 시제품 중 동결건조 김된장국은 고흥군 사회적기업 농업회사법인 ‘주담우’와 공동으로 개발했으며, 김스낵은 여수시 사회적기업 ‘주쿠’와 협력해 완성했다.

지죽도·죽도에서 생산되는 김은 청정 해역에 서 자라 품질이 우수하나 그간 원물 중심의 유



통이 대부분을 차지해 활용도와 소비 확장성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앵커조직은 지난해 사회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제품 아이템을 선정하고, 올해 두 사회적기업과 협력해 김을 가공한 시제품을 개발했다.

동결건조 공법을 적용한 고흥 김된장국은 따뜻한 물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식 형태로 제작돼 보관성과 휴대성을 높였다. 김스낵

은 지역 김의 풍미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제품으로, 향후 로컬푸드 제품군 확대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담우와 주쿠〉는 이번 시제품 개발을 계기로 지역 자원의 고도화와 로컬푸드 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결건조 김된장국은 내년 1월 고흥군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최종·금사랑 앵커조직이 운영하는 ‘제1회 해창만 고흥 굽축제’에서 시식회를 통해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 주민과 방문객의 의견을 반영해 제품을 단계적으로 개선·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흥군 해양개발과 관계자는 “지죽도·죽도 지역 김은 이미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나 가공·유통 분야에서는 아직 성장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시제품 개발은 고흥 김의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순천시, 내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230명 모집

오는 29일까지 접수…내년 2월부터 근무

순천시가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모집 규모는 공공근로 사업 17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60명 등 총 230명이다.

선발된 참여자는 내년 2월23일부터 6월30일 까지 약 4개월간 정보화 추진,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 정비 등 시 산하 143개 사업장에 배치돼 근무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순천시민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누리집(홈페이지) 인사채용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단순한 일시적 일자리 제공을 넘어 시민들이 더 나은 민간 일자리로 재진입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정기자〉



순천·목포대 통합교명 2파전…오늘 ‘투표’

전체 구성원 대상 선호도 조사

최종 1·2순위 선정 교육부 제출

국립순천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의 통합대학 교명 후보가 ‘전라국립대’와 ‘전남국립연합대’ 등 두 가지 안으로 최종 압축됐다.

16일 양 대학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8차 ‘대학 통합 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주위)’ 회의를 통해 통합 대학의 교명 최종 후보를 이같이 확정했다.

이번 후보안은 지난 9월24일부터 10월10일까지 진행된 대국민 공모 결과와 전문가 컨설팅, 구성원 의견 등을 종합해 마련됐다.

공주위는 이를 바탕으로 세 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통합 대학의 비전을 가장 잘 담아낸 두 개의 명칭을 낙점했다.

먼저 ‘전라국립대’는 전라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했다. 지역의 역

사·문화적 기반을 결합해 전라권을 중심으로 국가의 교육·연구 기능을 선도하는 ‘거점 국립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전남국립연합대’는 전남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두 대학의 ‘수평적 협력’에 방점을 뒀다. 각 대학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공동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통합의 방향성을 반영한 명칭이다.

양 대학은 확정된 후보안을 두고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체 구성원(교수·직원·조교·학생)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투표는 접근 편의성을 고려해 온라인 익명 방식으로 진행되며, 1인 1회 참여로 제한된다.

선호도 조사 결과는 공주위에 보고돼 최종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후 양 대학은 교명 후보를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해 통합수정신청서에 반영한 뒤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순천=양홍렬 기자〉



화순군-한국광해협회, 광해방지사업 힘 모으다

폐광지역 지속 가능 발전 MOU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 기대

화순군과 한국광해협회가 폐광지역 광해방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힘을 모운다.

16일 화순군에 따르면 전날 군청 회의실에서 폐광지역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폐광지역 광해방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환경복원과 지역사회에 지속 가능 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동 목표로 설정했다.

화순군은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행정 지원

강화,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고, 한국광해협회는 지역 업체 활용과 지역 주민 우선 채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김남한 한국광해협회 회장은 “화순군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광해방지사업 분야의 모범 사례를 만들 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광해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광해방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이병철 기자〉

담양군, 정부 수도사업 평가서 ‘최우수’

기후부 주관…정수장 개선 등 호평

담양군은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2025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서비스 품질 향상과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 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상수도 일반 ▲상수도 운영 및 관리 ▲상수도 정체 등 3개 분야 31개 세부 항목을 기준으로 지난해 실적을 평가했다.

담양군은 급수인구 5만명 이하 평가그룹 47개

지자체 가운데 상위 20%에 해당하는 A등급을 받았다. 특히 호남·제주 지역에서 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담양군이 유일하다.

군은 수돗물 운용 분야에서는 상수도종합정보시스템 운영과 정수장 개선 실적을 통해 맑은 물 공급에 힘써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고도정수처리 운영과 노후 배·급수관 교체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질 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도 주효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꾸준히 이어온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